

# 킬러문항 없는 6월 모평, 2024학년도 수능보다 쉬웠다

### 난이도·변별력 갖춘 문항 출제... 낯선 유형 수학 문항 '당황' 47만4133명 응시...의대 증원에 졸업생 8만8698명 '최다'

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보다 다소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입시 학원가에서는 수학, 영어가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했다. 광주시교육청 진학부장협의회와 EBS, 학원가는 이날 모평에서 국어 영역은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수학 영역은 기존 출제 유형과 달리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이 고전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난도 높은 문항으로는 독서 영역의 경우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 개념인 '중합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묻는 9번 문항과 (가), (나)에 제시된 정보와 '보기'에 제시된 정보를 비교해 이해도를 따지는 16번 문항이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국어의 EBS 연계율은 독서와 문학 공통과목에서 수험생이 체감할 정도로 높았다"면서 "독해에 어려움을 따르는 주제 통합 지문은 EBS 연계 교재의 내용과 아주 흡사했다"고 분석했다.

수학 영역에서는 3월과 5월 학력평가만을 치렀던 고3 수험생들에게는 낯선 형태의 문항이 출제됐다.

광주진학부장 협의회는 "공통과목의 15번, 22번, 선택과목의 각 30번 문항이 변별력 높았다"면서 "미적분의 경우 최상위권 학생들도 버거운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 출제됐다"고 진단했다.

종로학원은 "공통과목에서 객관식 마지막 문항 15번은 통상적으로 수학에서 출제되고, 주관식 마

지막 문항인 22번은 수학II에서 출제됐으나 이번 모평에서는 15번 문항이 수학II(적분), 22번 문항은 수학I(수열)에서 출제됐다"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평소 패턴과 달라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EBS는 공통과목 22번(수학 I)과 15번(수학 II),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을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꼽았다.

EBS측은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골고루 출제됐다.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소위 '킬러 문항'이 아니면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이 포함됐다"고 진단했다.

EBS 대표 영어 강사인 김예령 대외외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능 영어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은 작년 수능과 대체로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로학원은 지난해 어려웠던 수능보다는 약간 쉬운 정도로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수능 수준의 변별력을 거의 유지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종로학원은 "수능 최저등급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나 영어 1등급 맞추기가 사실상 상대평가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는 47만4133명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 1만458명 증가했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8만5435명(81.3%)으로 1만60명 늘었고, 졸업생 등(졸업생+경증고시생)은 8만8698명(18.7%)으로 398명 늘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4일 광주경신여고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2교시 수학 영역 문제를 풀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태평양전쟁 밀리환초 사망자 214명 '전남 출신'

### 강제동원 시민모임 7일 명단 공개... 조선인 희생자 218명 첫 확인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태평양 남양군도 밀리환초에 끌려가 숨진 218명의 조선인 가운데 214명이 전남에서 끌려갔다는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제시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오는 7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밀리환초 학살사건'을 폭로하고 일제의 만행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전남 피해자들을 조명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다케우치씨의 연구결과 학살된 조선인중 55명은 담양 출신 25명을 포함해 모두 전남이 본적지로 확인됐다. 이들을 포함해 강제노역 당시 숨진 희생자는 총 218명에 달했다.

2010년 정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를 통해 밀리환초 학살 피해자의 성(姓)과 출신 군(郡)이 일부 밝혀진 바 있지만, 이번 고발에서

학살 희생자 55명을 포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망자 218명의 성명 전체와 본적지 등이 공개된다.

밀리환초 학살사건은 1945년 2월 남태평양 마셜제도에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들이 일본군의 식인 사건에 저항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학살된 사건이다.

1942년 초 조선인 군무원 800~1000명은 비행장 등 군사시설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마셜제도 동남쪽 끝에 있는 밀리환초로 강제 동원됐다.

이 곳은 크고 작은 100여개 섬이 가늘고 둥근 띠 모양을 이루는데 태평양전쟁 당시 최전방 요충지였다. 원주민 500여명이 살던 섬에 일본군과 징용 조선인이 몰려오면서 1944년 초 거주인원은 5300여명을 넘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토질과 기후가 좋지 않은 데다 미군 공격으로 1944년 6월 이후 식량 보급이 막히자 일본군은 섬에 흩어져 식량을 채집하거나 농경, 어로로 생

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1945년 2월 28일 체르본 섬에 살던 조선인 120여명이 감시 목적으로 파견된 일본인 11명 중 7명을 숲속으로 유인해 총기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1945년 초 일본인이 숙소로 '고래고기'라며 건네줘 허기진 조선인들이 먹었는데, 며칠 뒤 근처 무인도에서 살점이 도려진 채 숨진 조선인 사체가 발견됐다.

조선인들은 곧바로 일본군이 산 사람을 살해해 먹었고 조선인에게도 공급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저항했다.

조선인들 둔기나 곡괭이를 휘두르거나 돌과 다이너마이트를 던지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55명의 조선인이 처참하게 학살당했다.

한편 시민모임과 다케우치씨는 밀리환초 강제 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 또는 유족을 찾고있다. 피해자나 유족은 시민모임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노동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 등 3단체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흡수 반대"

### 민주노총·센터장 등 입장문

광주지역 노동단체가 "광주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노동인권센터" (3센터)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경진단)으로 흡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3센터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의 3센터 흡수 운영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노동단체인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비정규직센터', '청소노동인권네트워크' 각각 지난 2013년부터 3센터를 위탁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 광주시의 예산이 큰폭으로 삭감되는 탓에 광주시가 경진단으로 3센터 운영을 흡수하려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올해 12월 노동3센터의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광주시는 3센터를 경진단으로 흡수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이 흡수된다면 10여년 동안 3센터가 축적해온 경험과 성과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진단의 주요 업무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상공인 지원업무로, 직종별 특성에 맞는 상담·대화, 당사자들과의 호흡을 해야 하는 노동센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상담할 곳이 없어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섭 민주노총 광주본부 교육선전국장은 "민주노총 도시 광주는 미조직·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단체와 함께 노동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 동명동 행복센터 신청사 '첫 삽'

### 서석교회 후문 인근 동명동 80-15 일원 2025년 준공

광주시 동구는 지난 3일 동명동 행복복지센터 신청사 착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1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존 동명동 행정복지센터(동명동 156-4)는 지어진 지 32년 된 노후 건물로 사무 공간이 협소

하고 좁은 골목길에 둘러싸여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신청사는 광주서석교회 후문 인근인 동명동 80-15 일원에 들어서며, 연면적은 3244.83㎡,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예정된 준공 날짜는 오는 2025년 12월이다. 1층에는 행복복지센터가 들어서며 2층에는 주민건강센터가, 3층에는 동대본부와 마을사랑채 등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